



●●산림분야 투명사회협약 체결

산림청(청장 서승진)은 17일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산림청, 산림조합중앙회, 한국녹색문화재단 등 21개 산림분야 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지속가능한 산림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 '산림분야 투명사회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제6회 산의 날 기념식

산림청은 '제6회 산의 날'을 맞아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이티(αT)센터 앞에서 열린 기념행사에서 극단 사다리의 단원들이 '지구 온난화의 해결책은 숲이다'는 주제로 행위극을 하고 있다.

이날 기념식과 함께 새로운 '시대변화에 부응한 산림행정 발전 방안'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이 열렸다.





● 동북아 산림네트워크 구축 회의

산림청은 지난 18일 서울 코리어나호텔에서 동북아 4개국이 황사와 사막화 피해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동북아 산림네트워크 구축 회의’를 갖고 협의체 구성과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산림청을 비롯해 중국 국가임업국, 일본 임야청, 몽골 자연환경부 등 4개국을 비롯해 UNCCD(유엔사막화방지협약)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 숲 문화 체험시설 “숲체원” 개관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삽교리 청태산 기슭에 국내 유일의 숲 문화 체험교육 전문시설인 ‘숲체원’이 5일 문을 열었다.

숲체원은 부지면적 132,742㎡, 연면적 7,058㎡ 규모로 총 18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어 2004년에 착공, 약 3년만인 올해 7월에 준공하였으며 산림청이 한국녹색문화재단에 위탁하여 관리, 운영한다.

숲체원은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산 정상까지 휠체어를 타고 오를 수 있는 총1km 길이의 ‘휠체어 데크로드’가 설치되고 국내산 자연목을 사용한 숙소(52실), 교육/공연/체육활동을 위한 다목적 강당을 비롯해 연수시설, 원형전시관, 야외공연장, 문화시설, 숲 탐방로 등 다양한 숲체험 시설과 공간을 갖추고 있어 숲체험 교육을 위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